



레바논과 이스라엘을 위한 기도

©아제르 인트레이터, 2006년 8월 11일

이스라엘 국외 내부 소식통에 따르면 이번 주에 특별히 긴박한 외의가 열릴 것이라고 합니다. 국외는 남부 레바논의 통제권을 리타니 강까지 장악하기 위해 지상 공격을 확대하는 건에 대한 결정을 두 번이나 미뤘습니다. 연기의 이유는 UN에서 제안된 휴전 협정이 이뤄질 수 있을지를 보기 위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국민들은 (겨를 포함하여) 연기 소식에 낙담하고 있습니다. 군대가 진격을 계속해야 협상 시에 유리한 위치에 있을 수 있으리라는 생각입니다. 물론 에스볼라 측에선 이스라엘에 대한 공격을 조금도 축소시키고 있지 않고, 이로 인해 상황은 악화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정부 지도자들이 군사적 결정을 바로 할 수 있도록 기도에 주십시오.

프랑스가 휴전 협정 체결에 앞장서고 있는 듯 합니다. 레바논 남부 완충 지대 확보의 일환으로 군대를 보내겠다고 자원까지 썼습니다. 프랑스는 유럽에서 반 이스라엘 감정을 주도하고 이슬람 극단주의자들과 타협에 왔습니다. 긍정적인 면에서는 프랑스가 역사적으로 레바논 및 많은 아랍 국가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해 왔습니다. 아이러니컬하게도 이 점이 협상 시에 그들이 돕는 데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게 합니다. 우리는 프랑스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이것은 선한 일, 혹은 재앙적인 일을 초래할 수 있는 기외의 창인 것입니다. 이번 주말은 그들에게 별충의 시간이 될 수도 있고, 선고의 시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변화를 일으킵니다.

이번 협상의 주요 인물은 레바논 총리 푸와드 세니오라입니다. 세니오라는 에스볼라에 반대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에게 그들을 무장해제시켜 국가의 통수권을 장악할 능력이 없었습니다. 안타깝게도 전쟁으로 인한 파괴는 그를 에스볼라에게로 이끌었고,

이스라엘에 반하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어쩌면 레바논 국민들을 향한 사랑으로 그는 이 시점에서 협상에 나서고, 현실적인 해결책을 마련할지도 모릅니다. 이번 주말은 또한 그가 만회할 시간, 혹은 비난 받을 시간이 될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우리의 기도가 변화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여기서 가져야 할 의문은 유전이 이뤄져야 하는가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남부 레바논에 연합군이 주둔해야 하는가도 아닙니다. 이 두 가지는 처음부터 이스라엘의 목표 중 일부였습니다. 이스라엘은 레바논과 평화 협정을 맺길 원합니다. 우리는 그 협정이 에스볼라를 무장해제시키거나, 최소한 그들의 공격 능력을 감화시킬 현실적 안보 방안을 포함할 것인가 질문에 봐야 합니다.

저는 에스볼라가 파괴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나 에스볼라의 영향력은 단지 대 이스라엘 테러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닙니다. 레바논의 여론과 세계 여론에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에스볼라가 군사적으로 굴복되어야 할 뿐 아니라, 레바논 국민이 국가 통제력을 확보하고 지아드 운동의 영향력이 좌절되어야 합니다. 이번 주 UN에서 논의된 것은 일부분 “정사와 권세” (엡 6:12) 및 “모든 이론과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 (고후 10:5)과의 대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군은 전쟁의 이 부분은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기도로 애내야 할 부분입니다.

우리 영적 전쟁은 또한 우리 자신의 죄를 회개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골 2:17) 그리고 복음을 전파하고(고전 1:18~19), 화평의 본을 보여야 합니다. (이 경우엔 유대인과 아랍인 사이의 화평이겠지요. 엡 2:14) 레바논의 복음주의 크리스천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 지역 안 목사님이 아신 말씀을 봅시다.

슬프게도 매일매일 많은 이들이 피난민이 되고 있고, 오늘마저도 새 마을들이 위협을 받아 피난길로 양아게 되었습니다. 이들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상황이 매우 어렵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이에서는 농담 삼아 사역이 부응되고 있다고 말합니다. 구호 작업, 관계 유지, 그리고 복음 전파 등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너무나 많습니다. 전 무슬림들이 이렇게까지 복음에 굶주린 것을 본 적이 없다고 자신 있게 말합니다. 많은 사례를 드릴 수 있겠지만, 저는 하나님께서 이 일을 넓혀 주시고, 많은 이들의 마음을 만져 주실 것을 믿습니다. 저의는 지역 내에서만 1,000 명의 사람들에게 다가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더 많은 이들을 품길 원하십니다.

그들의 구호 작업, 전도, 그리고 남부 레바논의 NK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특별히 전쟁 가운데 잡힌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레바논에게 있어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때입니다. 이 모든 완란과 고통 가운데 이 나라에 부흥과 회복이 있기를!

제 친구 에디 산토로는 '60' 인수를 이야기합니다. 미국의 인구는 이스라엘의 약 60 배에 달합니다. 유럽에도 60 배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주변의 아랍 국가들에도 60 배 인구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번 전쟁의 희생자(130)가 상대적으로 적어 보이지만, 이스라엘 주변의 강대국들에 비하여 계산해보면 수천에(7,800) 이르는 수입니다.

또 하나의 인수는 경제적인 것입니다. 북부 이스라엘의 관광, 농업, 소규모 영업이 심각한 타격을 입었습니다. 매일 전쟁이 지속될수록 이스라엘의 경제는 더 큰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나스랄라의 전략은 레바논 경제 규모를 1/10 로 줄여셔라도 이스라엘에게 같은 피해를 입히려는 것입니다.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요 10:10) 지아드 세계관은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방해가 되는 누구에게라도 철저한 파멸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군은 에스볼라의 무기와 군사 시설에 이란이 10 억(!) 달러 이상을 투자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철저한 파멸의 세계관은 또한 어제 영국의 검거 연장에서 볼 수 있었습니다. 안테러리스트 조직이 런던에서 출항하는 10 대의 미국 양공기를 폭파하려는 계획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새로운 악마적 전략을 가지고 나타났습니다. 탄산음료 컨테이너를 비행기가 들고 타서 핸드폰 내지는 컴퓨터 내의 장치를 이용해 폭발시키는 ‘액체 폭탄’ 전략입니다. 세계가 눈을 떠 이슬람 테러리즘의 위험성을 보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맞서 싸워야 합니다.

많은 크리스천들이 전쟁 가운데서 싸우는 것이 하나님 뜻에 압당한 것인지 옛갈려 하고 있습니다. 팔레스타인의 기독교 약자 살림 무나에르는 최근 4 세기 교외 성 어거스틴의 위치에 대한 요약서를 발표했습니다. 그 가운데에는 크리스천이 전쟁에서 싸워야 하는가에 대한 4 가지 분야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선, 침략자로부터 무죄한 민간인들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일 때 전쟁은 정당화됩니다. 둘째, 정의를 실행하려면 때로 우리가 전쟁에 가담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셋째, 개인은 전쟁을 수행할 권리가 없습니다. 이것은 합법적 정부의 역할입니다. 넷째, 전쟁은 가장 정당한 이유를 가지고 시작할 뿐 아니라 정당한 방식으로 수행되어야 합니다.

우리 유대인들에게는 조금 더 간단해 보입니다. 3억의 무슬림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없이하고자 할 때, 우리는 스스로를 보호하는 것 외에는 선택권이 없습니다. 말씀에 나타난 이스라엘의 역사는 언약의 백성으로서 생존하려는 노력이 길고 생생히 묘사되어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 자신의 죄에 대하여 싸웠고, 때로는 이방 민족의 공격에 맞서 싸웠습니다.

베를린의 이스라엘 리포터 엘다드 벡은 감추어 보관되었다가 최근에 대중에 공개된 나찌 문서들을 다룬 독일 신문 <빌트>를 인용합니다. 그 중 하나는 1939년 5월에 히틀러가 ‘개신교’ 신학자들을 모아 기독교를 유대교로부터 쟁화시키는 연구소를 만들었다고 기록합니다. 그들은 성경과 기독교 신학을 다시 쓰고, 예수가 유대인이었다는 사실과 관련한 모든 자료를 삭제하기 원했습니다. 그것이 히틀러에게 왜 그렇게 중요했을까요? 사탄에게 예수와 유대 민족의 관계를 끊는 것이 그리도 중요했다면, 그 둘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하나님께 그만큼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나치즘과 이슬람 지하드 모두 유대 민족을 멸절시키는 것을 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유대 민족에게 그들을 보존하시리라는 약속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렘 31:36~37) 예레미야의 이 약속은 새 언약에 대한 예언의 일부입니다. (렘 31:31~34) 다시 말해서, 크리스천들에게 영원한 생명과 죄의 사함을 약속하는 언약이 또한 유대 민족의 생존을 약속한다는 뜻입니다.

영적 전쟁은 육적 전쟁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둘 다 이스라엘과 이어져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이어진 이유는 예슈아께서 그의 나라를 지상에 세우시기 위해 이곳으로 돌아오시리라, 다윗의 위에서 다스리시리라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반유대주의와 나치즘, 이슬람 지하드의 배우에는 예슈아의 재림에 대항하고 있는 사탄의 노력이 있습니다.

고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때때로 군사적 위기에 있을 때, “애 질 때까지 금식” 하였습니다. (삿 20:26) 갈등이 해결될 때까지 우리도 그와 같이 합시다!

번역: 고병연